

<2012년 1월 18일 수요일 새벽 잠언>

1. 긴장하고 재촉하면서 하면 금방 한다.
2. 주님은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때를 중심해서 찾아오신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주님이 수시로 말씀하시어 그 마음이 자기 마음에 전달된다.
3. 주님은 각 사람들이 행하는 것에 따라 하루에도 하실 말씀이 많으시다. 늘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계속 그 마음에 하실 말씀을 보내신다.
4. 이 잠언의 계시를 쓰는 이 시간도 기도 시간이 아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님은 계속 말씀하신다. 주님은 인간의 때를 맞추지 않으신다. 주님의 때를 맞추신다.
5. 계속 바쁘게 공적인 일을 하고, 지금은 순간 밥을 먹는 때다. 그래도 다 제쳐 놓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주님의 때를 맞춘다.
6. 주는 자는 주는 자가 원하는 시간에 준다. 그때 받는 자가 열 일 제치고 안 받으면 못 받는다. 이와 같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을 때도 동일하다.
7. 주님은 계시하실 때 자세하고 세밀하고 은밀하게 보이신다. 고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보이시며 계시하실 때, 왜 그 같은 환경과 그 사람을 보이셨으며 왜 그렇게 보이셨는지 연구하고 풀어야 된다.
8. 자기 처지가 그러하니 그러한 배경을 보이시고 그 사람을 보이시며 깨닫게 하신다. 그로 인하여 자기와 상대와 주님의 입장을 깨우쳐 주신다.
9. 태양이 항상 비추듯이 주님은 항상 온 인류에게 하실 말씀을 비추신다. 각자 주님의 영적 단계에 올라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과 통하면, 그 말씀의 빛과 통하게 된다.
10. 주님께 진정 자기 사연을 한 마디씩 하면서 그렇게 300마디, 700마디를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은밀히 마음에 들려온다. 그 소리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답이다. 신의 음성은 간단하고, 그 느낌은 마음과 혼을 감동시키며, 마음으로 느껴져 전해진다. 신의 음성은 육의 귀로 들리지 않는다. 마음의 귀, 깨달음의 귀로 들려온다.
11.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마음속에서 세상 잡음을 없애야 하고, 마치 화살을 만들어 과녁판에 꽂듯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사랑으로 만들어 계속 주님께 꽂아야 된다.